

# 책과 영화의 공존시대

‘베스트셀러 소설은 곧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국내 영화계의 ‘베스트셀러 영화 만들기’는 일반화되고 있다. 90년대만 보더라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영원한 제국》 《태백산맥》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너에게 나를 보낸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등 베스트셀러 소설들이 영화화되었거나 촬영중에 있다.

책과 영화, 두 매체간의 유기적인 관계는 19세기말 영화의 초창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이름을 날리던 감독이었던 그리피드는 자신이 독창적으로 영화에 사용했을 기법들 중 많은 부분이 찰스 디킨즈의 문학작품에서 따온 것이라고 밝혔다.

《전함 포템킨》으로 ‘최초의 천재감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에이젠스타인은 그리피드의 이같은 발언의 정황을 탐구한 《디킨즈, 그리피드 그리고 현대영화》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글에서 에이젠스타인은 그리피드가 소설로부터 전이받아 영화에 응용한 기법들, 즉 프레임의 구성, 쇼트의 분할, 몇개의 신을 병치하는 편집기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위적인 예술가들의 장르였던 영화가 차츰 ‘관객’이라는 자본과 결합하기 시작하면서 책과 영화의 관계는 다른 차원으로 진전되기 시작한다. 예술로서는 후발주자인 영화가, 소설이나 시인들이 문학이라는 장르에서 보여준 예술적 방법과 성취도를 받아들이면서 관계를 맺어 왔던 초창기의 관계가 아닌 흥행에 목적으로 하는 책과 영화의 결합이 시작된 것이다.

이처럼 소설이 영화화되는 현상은 영화적 소재의 부족, ‘시나리오’라는 장르의 부진, 대중들에게 이미 알려진 소설을 영화화해서 얻을 수 있는 몇가지 장점 등에 힘입어 일반

**흥행만을 염두에 두고 원작의 지명도에 기대서 영화를 제작하는 ‘책과 영화’의 밀월관계는 책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 두 장르의 명분있는 공존이 절실한 상황이다.**

적인 경향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장 록 고다르처럼 이같은 경향에 반기를 들고 시나리오조차 없이 영화를 만들기도 한 감독들도 있었지만 ‘베스트셀러 소설의 영화화 현상’의 가속도를 막지는 못했다.

명작으로 꼽히거나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 중 《국가의 탄생》은 토마스 디슨의 《k.k.k 단원(The Klansman)》을, 《알라모》는 론 틸리의 《영광의 13일(Thirteen Days To Glory)》을, 《지옥의 묵시록》은 조셉 콘라드의 《암흑의 영혼(Heart Of Darkness)》을, 《좋은 친구들》은 니콜라스 필레지의 《현명한 녀석(Wiseguy)》을, 《케이프 피어》는 존 D. 맥도날드의 《사형 집행인(Executioner)》을, 《다이하드 2》는 윌터 와거의 《58분(58 Minutes)》을 영화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베스트셀러를 영화화했을 때 보편적으로 흥행에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의 경우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학자 루이스 자네티는 “열등한 소설을 영화화하는 것이 흥행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이론을 피력하고 있을 정도이다.

실제로 앞에서 거론한 영화의 원작소설들도 대부분 베스트셀러가 되지 못한 것들이다. SF 영화의 걸작으로 꼽히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년 스페이스 오딧세이》는 아서 클라크의 주목받지 못한 소설 《감시인(The Sentinel)》을, 리들리 스코트 감독의 《블레이드러너》는 당시에는 무명작가였던 필립 K. 딕의 소설 《인조인간은 전기양을 꿈꾸는가? (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를 걸작영화로 만들어냈다.

반면에 에밀 졸라의 소설을 영화화한 《인간의 욕망(Human Desire)》, D.H. 로렌스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여우(The Fox)》, 하인리히 만의 소설을 영화화한 《푸른천사(The Blue Angel)》, 안톤 체홉의 《세자매》를 영화화한 《사랑과 공포(Love And Fear)》 등 지명도 있는 유명작가의 명작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영화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

이같은 현상은 원작 자체가 지명도가 없을 경우 감독의 의도에 맞게 수정하거나 변형시키는 것이 자유롭고, 원작이 이미 널리 알려진 경우는 원작의 의도와 이미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영화학자들은 “한 예술작품이 한 가지 장르에서 최대한의 예술성을 달성했다면 그것을 다른 장르로 옮기는 것은 원작에 비해 열등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흥행만을 염두에 두고 원작의 지명도에 기대서 영화를 제작하는 국내의 경향은 책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 결국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영화와 문학의 관계는 상업적인 착상에서 벗어나 두 예술의 공존과 발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영화가 언제까지나 문학에 신세를 질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 출판저널

통권 제171호 / 1995년 6월 5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종환  
편집주간—이승우  
편집장—김지원  
기자—정혜옥 허연  
                  한강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지옥

업무부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최학수  
총무부장—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타이피아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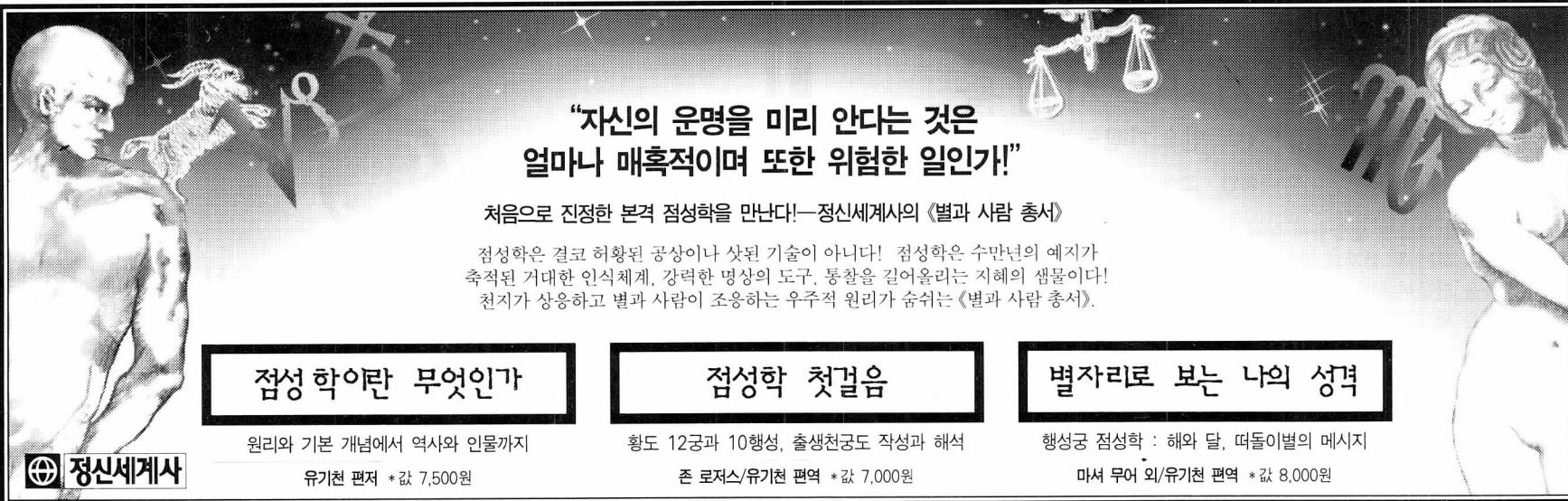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안다는 것은 얼마나 매혹적이며 또한 위험한 일인가!”

**처음으로 진정한 본격 점성학을 만난다!—정신세계사의 《별과 사람 총서》**

점성학은 결코 허황된 공상이나 샛된 기술이 아니다! 점성학은 수만년의 예지가 축적된 거대한 인식체계, 강력한 명상의 도구, 통찰을 길어올리는 지혜의 샘물이다! 천지가 상응하고 별과 사람이 조응하는 우주적 원리가 숨쉬는 《별과 사람 총서》.

**점성학이란 무엇인가**

원리와 기본 개념에서 역사와 인물까지  
유기권 편저 \*값 7,500원

**점성학 첫걸음**

황도 12궁과 10행성, 출생천궁도 작성과 해석  
존 로저스/유기권 편저 \*값 7,000원

**별자리로 보는 나의 성격**

행성궁 점성학 : 해와 달, 떠돌이별의 메시지  
마서 무어 외/유기권 편저 \*값 8,000원

**정신세계사**